

현대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특성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Little Black Dress in the Modern Fashion

- Mainly Focused on Works after the Year 2000 -

Sun-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6. 9. 22 투고)

ABSTRACT

Since its birth, "Little black dress" that has been prospering and reviving continually for 80 years, is always favored as classical fashion item.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ittle black dress", regarded a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fashion, could become an eternal item over a century by analyzing the aesthetical characteristics of it. Thus,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modern women and aesthetic value of modern fashion. The precedented studies and literatures are reviewed for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Little black dress," and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only after the year 2000. Also, fashion work collections a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magazines are analyzed demonstratively.

After the Little Black Dress was born with the bullish black color in the year 2000,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spotlighted Little Black Dress in the modern fashion are as the following. First is modernism. Modern style of black dress is appeared through simple and moderate expressions such as pursuit of simple line, minimization of decoration and exclusion of accessories. Second is sensuality that emphasizes flashiness of black by gloss or see-through fabric and exposing one's body parts or dress that exposes body's curves not only express women's physical attraction but also show off woman's social status or roles. Third is femininity. Ruffle, ribbon, flowing-like fabric, and rhythmical details express charms of sophisticated and trendy women as well as romantic image of girlish sensibility. Fourth is hybridism. Experimental and creative thinking like designers' unique re-interpretation of "little black dress," fresh view to sexuality, breaking up of the existing principle of clothing compositions give wholly new aesthetic value.

Key words: modernity(현대성), sensualism(관능성), femininity(여성성), hybridity(혼성성)

I. 서론

현대패션은 단순한 유행현상에 그치지 않고 의사소통의 코드이자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서 인간의 자아와 사회적 비판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회문화의 기호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현대패션은 현대인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착용자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되고 현대예술의 한 영역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오늘날 현대패션의 경향이 자유로운 개성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패션에 대한 사고의 틀 역시 해체되었고 단 하나의 장르가 아닌 다양한 경향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패션에 있어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것들은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스타일로 하나의 기본 스타일로서 정착된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 샤넬(Chanel)에 의해 등장한 리틀 블랙드레스(Little Black Dress)로 현대패션의 기본적인 아이템이며 수 많은 패션의 변화 속에서도 여성들의 모든 의생활에 필수불가결한 패션의 클래식이 되었다.

패션에서 클래식한 아이템들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유기적인 전통으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으로 변화하는 패션의 특징 속에서 클래식한 아이템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리틀 블랙드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1990년대까지 리틀 블랙드레스의 계승을 통한 미적특성 연구¹⁾,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가 있고²⁾, 현대패션에서 블랙의 이미지, 블랙의상의 조형성³⁾ 등 주로 색상과 관련된 연구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변모되고 있는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로 리틀 블랙드레스의 시작에서부터 21세기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태적으로도 단순하고 블랙 하나의 색상만으로 한 세기 가량의 패션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또 다양한 패션의 트렌드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미적특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리틀 블랙드레스의 변천을 알아보고, 그 미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범위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 아래 블랙색상의 대두와 함께 리틀 블랙드레스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되어 패션 트렌드로서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연구의 시기를 2000년 이후의 작품만으로 한정하였으며, 패션관련 작품집과 국내의 패션잡지 등 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로 이루어졌다.

II. 리틀 블랙드레스의 변천

1. 20세기 전반

1926년 샤넬에 의해 탄생된 리틀 블랙드레스는 검정색을 가장 현대적인 색으로 해석한 아르테코 운동과 기능주의 추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인 세련미와 우아함 그리고 자유의 대명사가 되었다.⁴⁾ 패션에 있어 색채는 복식의 조형성을 평가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 그 의미와 상징성은 단순히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적, 상징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샤넬의 현대적인 감각은 조형적으로도 단순하면서 과거엔 금기시했던 블랙을 화려하고 유희적인 컬러로 승화시켰다.

당시 샤넬은 블랙이 대중적인 색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웨어와 이브닝웨어에 모두 블랙을 사용했고 데이웨어에는 크레이프나 울 처럼 차분한 소재를, 이브닝웨어에는 실크나 새틴 처럼 화려한 광택이 돋보이는 소재를 이용하여 많은 디자이너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리틀 블랙드레스는 페드가 아닌 클래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리틀 블랙드레스는 당시 속도와 효율의 개념에 기초한 소재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생활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의 삶과 의식에서의 급격한 효율성의 개념이 의복에 도입된 것으로 폴 푸아레(Paul Poiret)의 과잉장식을 배제하고 절제된 시크를 표현한 것이다(그림 1).

1926년 10월 호 미국 보그지는 샤넬의 이 새로운

드레스를 일러스트로 소개하면서 블랙드레스의 심플함을 당시 대량생산되던 미국 자동차 회사 Ford사의 모델 T와 비교하여 '샤넬의 사인이 들어간 포드로 모든 여성의 취향에 맞는 유니폼이 될 것이다.'⁵⁾라고 표현하면서, 단순하고 검은 색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어떻게 대중을 위한 기본의상으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 보그지는 이 드레스가 의미하는 자유정신 때문으로 예상했고 그것은 적중했다.⁶⁾ 샤넬 역시 "세헤라자드는 쉽다. 그러나 리틀 블랙드레스는 어렵다."⁷⁾라고 말하며 여성복의 진정한 현대화와 기능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였다.

리틀 블랙드레스는 샤넬 외에도 장 파투(Jean Patou), 몰리뇌(Molyneux), 롰롱(Lelong), 랑방(Lavin) 등 당시 디자이너들에 의해 유행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 우아한 여성적 분위기의 패션경향과 유행의 초점이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비오네(Vionnet)는 바이어스 컷팅의 블랙드레스를, 초현실주의 대표디자이너인 엘자 스키파렐리(Elsa Schiaparelli) 역시 관능적 이미지의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였다(그림 2).

1940년대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과 미국의 기능적인 기성복의 발달은 여성복에 밀리터리룩의 등장

을 나타내게 하였지만, 1947년 디올(Dior)의 뉴욕은 리틀 블랙드레스를 귀족적 취향의 고품격으로 변화시켰다. <그림 3>은 26.7m, 130m의 폭, 3kg의 무게를⁸⁾보이는 디올의 리틀 블랙 드레스로 디올은 이외에도 블랙드레스를 통한 수 많은 라인들을 선보이며 패션계를 이끌었다. 그는 "흑과 백만으로 컬렉션의 전 작품을 만들어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실체한 드레스를 색채로 성공시킬 수 없다. 그 보다 색채는 재단된 복식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⁹⁾라고 하면서 블랙 색상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다. 특히 그가 즐겨 사용한 블랙의 매트한 소재는 절묘한 재단과 봉제를 통해 완벽한 실루엣과 변화된 디자인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44년 미국 보그지는 '10명의 여성 중 열명이 리틀 블랙드레스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또 다른 리틀블랙드레스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블랙드레스가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분위기, 장소, 때에 따라 완벽하게 변한다. 가장 높은 시크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과 상관없이 수명이 길다.'¹⁰⁾고 지적한 것 처럼 자유와 현대성의 표현이라는 탄생 당시의 의미와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새로운 미적가치와 특성



<그림 1> Chanel, 1926(Chanel, p. 40)



<그림 2> Elsa Schiaparelli, 1930 (Harper's Bazaar, 2006.1)



<그림 3> Christian Dior, 1947 (La petite robe noire, p. 21)



<그림 4> Balenciaga, 1956(La petite robe noire, p. 23)

이 부여되었다.

1950년대 패션은 유럽이 주도하였던 시기로 블랙드레스는 유럽적 우아함과 시크를 대표하였으며 1950년대를 라인의 시대로 이끈 디올의 풍성한 드레스부터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조형적이고 귀족적인 우아함을 표현한 드레스까지 모든 디자이너들이 카테일 타입에 어울리는 블랙드레스를 만들었다. <그림 4>는 울크레이프 소재의 발렌시아가 작품이다. 앞 중심의 리본장식에서 뒤쪽을 향해 흐르는 드레이프로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나타낸 이 작품은 1956년 10월 호 L'Officiel de la couture를 장식하였다.¹¹⁾

2. 20세기 후반

1960년대는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로 리틀 블랙드레스에 유럽적 엘레강스가 아닌 미국 스타일로서의 기능적 세련미의 표현으로 새로운 현대성을 불어 넣었다. 진정한 의미의 블랙드레스는 60년대 미국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고 재클린 케네디의 미국적이며 모던한 세련미는 실용적이며 단순한 패션으로 미국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성이 우아하게 표현되었고 스포티한 라이프스타일에 개척시대의 모험정신이 반영되었다.¹²⁾

또 잡지, 영화, TV 등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 역시 리틀 블랙드레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지방시(Givenchy)의 뮤즈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과 마들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소피아 로렌(Sophia Loren),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카트린 드뇌브(Catherine Deneuve) 등 당대 최고의 패션 아이콘들이 블랙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출현하여 블랙드레스가 패션의 클래식이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그림 5>.

또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추구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슬림한 라인과 미니스커트의 유행을 가져왔고, <그림 6>은 패션에 있어 'Le Corbusier'라고¹³⁾ 불릴 만큼 기능주의에 기초하여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의상을 디자인한 쿠레쥬(Courreges)의 작품으로 금속버튼과 컷팅에 묘미를 살린 심플한 리틀 블랙드레스를 표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패션은 공식적인 규범에 대해 자유롭고 여유로운 해방된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게 되었고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를 보이며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 리틀 블랙드레스는 복고적 취향의 성숙한 분위기나 반항적인 아방가르드한 분위기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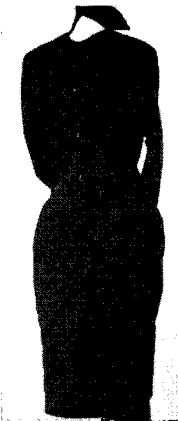
<그림 5>
Givenchy, 1960
(Icona of
fashion, p. 41)



<그림 6> Courreges,
1965 (La petite robe
noire, p. 69)



<그림 7> Comme des
Garçons, 1987(La
petite robe noire,
p. 33)



<그림 8> Azzedine
Alaia, 1981 F/W
(La petite robe
noire, p. 52)



<그림 9>
Chanel, 1995
F/W(Icona of
fashion, p. 41)

1980년대에 들기와 사회 전반에 흐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션에 있어서도 주류와 비주류간의 모든 상징적인 요소들을 다원적이고 절충적인 양식으로 표현하려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일본 디자이너들의 대두로 동양적 의복개념에 토대를 두고 블랙과 같은 무채색으로 비구축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분위기의 스타일들을 선보였다. <그림 7>은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비대칭적 실루엣을 보이는 콤포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레이가와쿠보(Rei Kawakubo) 작품이다. 그녀는“나는 블랙이라는 색에 항상 편안함을 느낀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블랙에 대한 내 느낌은 10년 전 보다 더욱 강하다.”¹⁴⁾라고 하여 블랙드레스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또 1980년대 경제성장으로 패션에서는 험 라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의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¹⁵⁾ 리틀 블랙드레스 역시 아제딘 알라이아(Azzedine Alaïa),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아이작 미즈라히(Isaac Mizrahi),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과 같은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에 의해 단순하고 스트레치성이 강한 소재, 노출 등 미니멀하고 에로틱한 스타일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림 8>은 블랙을 저지 소재로 된 작품으로 검정 비닐 허리띠에 의해 앞자락이 뒤판까지 두르게 된 스타일로 여성의 신체미를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 세기말적 분위기와 패션에 있어 더 이

상 고정된 법칙이 제한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의복의 표현방법이 시도되었고, 여러 패션잡지들은 이 시대 패션의 주된 경향으로서 최소표현기법을 사용한 미니멀리즘을 제시하여 1992년 1월 보그는 이 시기의 패션경향을 한마디로 '순수함과 단순함'¹⁶⁾이라고 요약하기도 했다.

첫 탄생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을 통해 진화와 부활을 거듭해온 리틀 블랙드레스는 90년대 들어서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느낌에 여러 디자이너들의 특징이 더해진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샤넬을 계승한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에 의해 재해석된 미니멀한 리틀 블랙드레스<그림 9>, 스트링 원피스부터 긴 소매에 이르는 비전형적인 패턴의 다양한 리틀 블랙드레스를 테마로 했던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1991년 컬렉션과 작은 플리츠를 이용해 볼륨감을 강조한 구조적 디자인을 선보인 1993년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컬렉션<그림 10>, 그리고 블랙을 그들의 영감의 원천이고 컬렉션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한 프라다(Prada),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등은 리틀 블랙드레스에 부르주아적 미니멀리즘을 표현하기도 했다.¹⁷⁾

이상의 고찰 결과 20세기 리틀 블랙드레스는 전반적인 패션의 흐름과 부합하면서 여성외상에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세기 리틀 블랙드레스의 특성

특성		20세기 리틀 블랙드레스의 특성	
시대	특성		
20세기 전반기	1920년대	당시 시대흐름인 기능성을 추구한 여성복의 자유와 현대화 표현	
	1930년대	보수적 성향과 초현실주의의 영향에 따른 관능적, 환상적, 여성적 이미지 표현	
	1940년대	뉴룩 스타일로 여성적 이미지 표현	
	1950년대	다양한 실루엣으로 유럽적 우아함과 시크 표현	
20세기 후반기	1960년대	미니멀하고 심플한 미니스타일, 미국 스타일의 기능적 세련미 표현, 오드리 햅번 등 당시 패션 아이콘들에 의한 대중화	
	1970년대	반항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이미지 표현	
	1980년대	바디컨서스 스타일과 일본디자이너들에 의해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로 표현	
	1990년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과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	
		· 단순성	· 여성성
		· 현대성	
		· 단순성	· 관능성
			· 아방가르드성

Ⅲ. 2000년대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특성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가치관과 윤리관의 급속한 변화는 현대인들의 미의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였고, 패션에 있어서도 과거와 클래식한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 요소의 패션트렌드가 상호 융합되어 나타나는 등 새로운 시대에 상응하는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리틀 블랙드레스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과 부합하여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는 특유의 섹시함으로 베어백 스타일의 저지 블랙드레스를,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40년대 디올 하우스 본래의 클래식함과는 거리가 먼 야방가르드한 블랙드레스를 선보였으며, 2001년 9월 파리 프렐탕(Printemps)백화점에서는 도덕적, 상징적, 미학적 의미 등 세 장르로 구분하여 현대패션에 표현된 블랙을 재조명한 <Ultra Noire>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⁸⁾ 2005 F/W에는 트렌드 컬러인 블랙 컬러의 강세와 함께 질 샌더(Jil Sander), 나르시소 로드리게즈(Narciso Rodriguez),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베로니크 브랑키노(Veronique Branquinho)등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리틀 블랙드레스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샤넬을 선두로 디올과 지방시 등 파리 디자이너들에 의해 파리지엔 시크를 표방하던 리틀 블랙드레스는 첫 출현 이후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도나 카란(Donna Karan)이 "리틀 블랙드레스는 여성 의복의 기본이다."¹⁹⁾라고 단언한 것 처럼 시대에 관계없이 자리 잡은 아이템으로서 프라다,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구찌(Gucci), 헬무트 랭(Helmut Lang), 캘빈클라인 등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부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앞장에서 고찰한 리틀 블랙드레스의 변천과정을 통한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블랙드레스의 이미지를 토대로 2000년 이후 작품을 분석한 결과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특성은 현대성, 관능성, 여성성, 혼성성으로 고찰되었다.

1. 현대성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한 기술의 혁신은 복식에 있어 대량생산 체제로의 이행을 가져왔으며 그 형태에 있어 단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현대 패션은 과거에 보여 준 인체의 왜곡과 과잉장식에서 벗어나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하면서 기능성과 실용성, 단순성에 역점을 두는 특성을 보임으로서 모더니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²⁰⁾

특히 디자인에서 블랙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생산과 더불어 자연재가 아닌 인공재료를 사용하면서 출현하게 되었고 현대성의 기준인 기능성, 일상성, 단순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모던한 컬러로 대표된다.²¹⁾ 색채의 조형성을 강조한 몬드리안(Mondrian)은 색 중에서 가장 정확성을 띤 색은 흰색과 블랙이라 하였으며,²²⁾ 칸딘스키(Kandinsky) 역시 블랙은 가장 정적인 색이며 구심적인 운동을 한다고²³⁾ 하여 블랙의 개성과 힘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과거 서구문화에 있어 부정적 의미의 블랙은 현대패션에 있어 절대적 시크와 모던 표현의 이미지로 현대색=검정색이라는 도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²⁴⁾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있어 블랙은 가장 상업적인 색이며 컷팅과 실루엣에서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색이 되었다.²⁵⁾ 특히 경쟁사회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이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로서의 로맨틱한 분위기 보다 오히려 매력적이고 샤프하고 민첩한 인상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고 세련됨과 자유, 현대를 표현하는 단순한 블랙드레스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갖게 함으로서 착용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하게 한다. <그림 11>은 이러한 개성표현을 보여주며 시크하고 패션너블한 현대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블랙드레스는 여성파워의 통합체다. 적나라하고 직접적이다. 왜냐면 순전히 실루엣과 형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풍자적이고 현대적이며 시대에 맞춰져야 한다. 지방시의 오드리 햅번 드레스가 있었듯이 나도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을 만한 드레스를 만들려고 노력한다."²⁶⁾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블랙드레스의 현대적 재해석을 피력하였다.



〈그림 10〉 Issey Miyake, 1993 S/S (La petite robe noire, p. 49)



〈그림 11〉 Samsonite Black Label, 2001 F/W(L'Officiel, 2001. 5)



〈그림 12〉 Narciso Rodriguez, 2003 F/W(Vogue Korea, 2003. 5)



〈그림 13〉 Helmut Lang, 2001 F/W (L'Officiel, 2001. 5)

〈그림 12〉는 간결한 조형적 라인의 추구하고 세부 장식의 최소화, 액세서리의 배제에 의한 간결성 등 단일 색상인 블랙만으로 단순성을 추구한 블랙드레스로 밀착된 형태로 인해 여성의 인체는 여과 없이 노출되어 시크하고 모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특히 광택 없는 블랙 소재는 완벽한 재단과 봉제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완벽한 실루엣을 표현해 낼 수 있으며, 신축성 있는 무광택 소재를 이용하여 기능성을 추구하거나 지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블랙드레스로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성의 추구는 인위적인 구조선을 배제하고 재단, 봉제, 장식 등의 제작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여 단순화시킨 것이다. 최소의 조형수단과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통해 현대성을 표현하여 이는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²⁷⁾〈그림 13〉 역시 인체에 어떤 왜곡도 가하지 않고 거의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H 실루엣으로 내부에 일체의 구조선이나 장식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칼라, 소매, 주머니 등 일체의 디테일이 생략되어 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선이 최소화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 관능성

관능성은 성적인 매력을 발산시켜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서 에로티시즘과 유사한 개념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며 특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구가 반영된 여성복은²⁸⁾ 신체의 노출이나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 또는 블랙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관능성을 표현하게 된다. 특히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 신체를 신성시하고 신비화하면서 자본의 이익, 즉 소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말처럼 여성의 신체미는 부와 사치의 향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여 신체는 자본화되고 물신화된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²⁹⁾

〈그림 14〉는 신체에 밀착되는 광택 소재의 블랙드레스로 바디라인이 여과 없이 드러나며 옆면의 코르셋 여밈 장식 사이로 노출되는 여성 신체부위와 함께 검정색이 서로 대비되어 강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이런 시각적 효과는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하기보다 성적 부위를 부각시켜 육체 그 자체를 복식의 한 구성 요소로 인지시킴으로서 여성의 신체를 통한 관능적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 Dolce & Gabbana, 2003 S/S(Vogue Korea, 2003. 5)



〈그림 15〉 Salvatore Ferragamo, 2002 S/S (L'Officiel, 2001. 12)



〈그림 16〉 Versace, 2004 F/W (L'Officiel Paris, 2004. 8)



〈그림 17〉 Dolce & Gabbana, 2001 S/S(La petite robe noire, p. 64)

프랑스 출신 디자이너 롤란드 뮈레(Rolande Muree)가 "블랙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퇴폐적이며 네글리제다."³⁰⁾라고 리틀 블랙드레스의 관능적인 매력에 대해 이야기 했듯이, 노출을 통한 관능미의 표현은 인간 내면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구사하고 육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에로틱한 관능미를 부여한다. 〈그림 15〉와 같이 투명소재인 오간자나 시폰을 단독으로 사용한 시스루의 블랙 드레스는 신체를 엿보는 훔쳐보기의 양태로 완전한 노출보다도 더욱 자극적인 관능성을 느끼게 한다.

Peddi는 "검정색은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빛의 자극이 없는 상태이나 심리학적인 면에서 빛의 자극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감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블랙의 근원적 가치는 어둠, 밤과의 연관과 죽음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밤의 욕망과 풍부한 육체적 사랑과도 연관이 있다.³¹⁾블랙이 성을 상징하고 있음은 60년대부터 유행한 페티쉬 패션으로 나타났고 이후 패션에서 성의 표현은 이전까지의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현대패션에서 표현되는 관능적 에로티시즘은 단순한 성 본능의 표출 뿐 아니라 패션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만족스러운 디자

인을 도출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³²⁾〈그림 16〉은 심플한 라인의 블랙드레스로 어깨부터 가슴에 이르는 긴 컷팅을 통한 여성 성적 부위의 간접 노출 그리고 소재가 인체에 밀착됨으로서 파생되는 인체 곡선의 노출로 여성의 성을 강조하고 있다. 형태를 안정시키는 블랙의 특성으로 여성의 곡선미에 명암을 주고 피부색과 검정의 대조로 착용자의 노출부위는 주목성이 높아져 컷팅된 디자인의 특징적 라인을 부각시키며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그림 17〉은 남성의 신체가 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여성의 등 전면을 노출시켜 노출된 여성의 신체를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하고 블랙에 의해 극도로 압축된 신체 곡선을 우아하게 표현하여 블랙드레스의 새로운 현대적 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능적 이미지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닌 여성적 육체의 성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과시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능적인 이미지를 가진 블랙드레스는 화려함의 이미지를 주는 재질인 벨벳이나 실크 소재를 통해 또는 신체부위 중 일부를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옷이 신체에 꼭 맞게 재단되어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3. 여성성

여성성이란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간주되는 성적인 여성적 특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감응력, 감각의 우수함, 부드러움, 온화함 같은 여성적인 미적 특성 같은 것을 뜻한다.³³⁾ 현대 여성패션에서 여성성의 강조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주체적인 표현으로써, 과거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여성 스스로가 즐기고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여성의 성적 특질을 강조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특히 현대인들은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상징성의 결여, 독자성의 상실, 자연성의 상실, 인간성, 개성의 상실 속에서 인간적인 것, 기계미를 벗어난 자연미를 추구하게 되었다.³⁵⁾ 이러한 자연미의 추구 속에서 디자이너들은 좀 더 인간미 넘치던 과거의 것들을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의 아이디어는 좀 더 우아하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표출되었다.

〈그림 18〉의 블랙드레스는 로맨틱한 뷔스티에 라인과 스커트부분의 하늘거리는 소재로 인한 부드러운 곡선의 울동성으로 여성인체의 곡선미를 살려주면서 모던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19〉역시 블랙의 서로 다른 소재가 주는 미묘한 색감의 차이로 세련미를 추구하면서 새틴 리본 장식으로 장식한 블랙드레스이다. 소녀적이고 여성적인 취향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형태와 실루엣, 소재의 배치는 블랙 베이비돌 드레스로 표현되어 로맨틱한 여성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서 리본 블랙드레스는 과거의 과잉장식에서 벗어나 인체의 자연미를 살리고 실용성과 여성스러운 미를 조화시키면서 다양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소녀적 감성의 취향뿐 아니라 우아하고 세련되면서 기품이 있고 화려함과 아름다움, 고상한 미가 느껴지는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20〉은 여성 인체의 곡선미를 살려서 품위 있고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표현한 블랙드레스이다. 이러한 엘레강스의 여성적 코드에 따른 움직임은 경쾌하고 유연하며 생기 있는 곡선적인 것으로 여성인체의 섬세하고 유기적인 완곡선, 울동감 있는 곡선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의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리듬이란 요소와 관계된다.³⁶⁾ 경쾌하고 생기 있는 리듬의 표현은 엘레강스의 생기 있는 형태와 조화성을 이루는 요소임과 동시에 블랙드레스의 여성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림 18〉 Lanvin, 2005 F/W
(W Korea, 2005. 5)



〈그림 19〉 Anna Molinari, 2003 S/S
(Fashion Insight, p. 52)



〈그림 20〉 Yves Saint Laurent, 2000
F/W (L'Officiel, 2002. 4)

4. 혼성성

문화 예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념 또한 확장되어 현대패션의 다양한 이미지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것으로 표현되는 현대패션은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형태가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을 지니게 되며,³⁷⁾ 포스트모던 문화의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해 혼성 모방된 패션의 재해석 역시 모방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법칙과 미를 발견하거나 존재하지 않던 것을 창조해 내게 된다.

1920년대 샤넬의 리틀 블랙드레스는 순수한 기하학적 구성으로 기능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시대 흐름에 부흥하는 현대 복식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2005 F/W 에 칼 라거펠트는 <그림 21>과 같이 로우 웨이스트 라인의 오프 숄더 블랙드레스로 재해석하여 커다란 리본장식과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의 바이커 룩으로 표현하여 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블랙드레스의 아름다움을 제시하였다.

또 패션의 역사상 전형적인 남성의 색으로 간주 되어 온 블랙과 남성적 영역이라고 믿어 왔던 군복의 요소를 차용하여 형식에 얽매어 있는 딱딱한 이미지의 밀리터리 스타일 대신 소프트하고 페미닌한

느낌의 블랙드레스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22>에 서와 같이 뷔스티에 타입의 블랙드레스에 밀리터리 느낌의 금속단추나 벨트 등을 장식의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혼성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보수적인 남성성 대신 여성성을 부각시키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님을 시사하여 남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완곡하게 나타낸 것이다.

또 <그림 23>은 비치는 시폰 소재의 여성적인 블랙드레스에 블랙 헬멧과 넓은 새틴 리본 테이프 로 옴을 휘감아 비정형적인 신체표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블랙 하나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인체를 은폐하고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욕구를 억제하는 금욕성의 가치와 비치는 소재와 노출된 인체로 인한 관능적인 여성미의 이중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을 구축하는 장으로서의 몸을 해체함으로써 여성관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비결정적인 착장을 통해 의복의 실루엣을 완성하여 착장자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과거 의복의 형태 처럼 고정된 된 것이 아니라 인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연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하나의 단일한 가치가 아닌 혼성적인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현대패션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불확정적인 구조는 착용에 따라 변화하는 창조적 자율성을 부



<그림 21> Chanel, 2005 F/W (W Korea, 2005. 9)



<그림 22> Balenciaga, 2005 F/W(Vogue Korea, 2005. 5)



<그림 23> Victor&Rolf, 2005 S/S (W Korea, 2005. 1)



<그림 24> Hussein Chalayan, 2002 S/S(L'Officiel, 2001. 12)

여한다. 즉 의복의 착장 방법에 따라 새로운 조형개념을 나타내 자기 자신의 표현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는 금속지퍼의 차가움, 찢긴 것처럼 해체되고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는 블랙드레스이다. 인체와 의복간의 개방적 사고와 탈구속적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인체에 종속되지 않는 의복고유의 독자적 순수미를 추구한 것이다. 형태와 비례, 사이즈 등 의복구성의 원리는 무시되어 모호한 부조화와 불일치 등 추의 개념으로서 표현된 블랙드레스는 자기이상과 예술적 의지를 표출시키는 새로운 혼성적인 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2000년대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는 전시대의 가치체계와 전통에 대한 부정 또는 혼성적이고 실험적인 새로운 재해석을 통해 그 미적가치와 조형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IV. 결론

첫 탄생 이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화와 부활을 거듭해온 리틀 블랙드레스는 21세기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클래식한 패션의 아이템으로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패션의 역사 속에서 형태적으로도 단순하고 블랙 하나의 색상만으로 영원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리틀 블랙드레스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한 결과 20세기 전반은 샤넬을 선두로 하여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단순성과 여성성, 현대성을 상징하는 특성을 나타내었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60년대 미니멀리즘과 미니의 열풍,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와 아방가르드한 표현 그리고 90년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한 극도의 미니멀리즘과 클래식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통해 리틀 블랙드레스는 다양한 의미와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와 흐름 안에서 2000년 이후 블랙의 강세와 함께 다시 현대패션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특성은 첫째, 현대성으

로 간결한 조형적 라인의 추구하고 세부장식의 최소화, 액세서리의 배제에 의한 간결성 등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통해 모던한 스타일의 블랙드레스로 나타났다. 둘째, 관능성으로 블랙 색상의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택 소재나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고 신체부위 중 일부를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의상 자체를 신체에 꼭 맞게 재단하여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등 여성적 육체의 성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과시하여 나타내었다. 셋째, 여성성으로 노출과 은폐를 통한 관능성과는 달리 러플, 리본, 흐르는 듯한 소재, 리듬감 있는 디테일 등을 통해 여성 신체의 매력을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스러움으로 표현하거나 소녀적 감성의 로맨틱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넷째, 혼성성으로 리틀 블랙드레스에 대한 디자이너의 개성이 더해진 새로운 재해석,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의 가치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존의 의복구성 원리에 대한 해체 등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미적가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리틀 블랙드레스는 다양한 형태와 소재, 디테일 등을 통해 다양한 미적 특성을 지니며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변화하는 패션의 흐름 속에서 20세기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전반적인 패션의 경향과 부합되면서 진행되어 왔다면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유행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었을 뿐만아니라 개방적이고 열린사고에 의한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개성이 더해져 보다 강한 전달력과 다양성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블랙이 지니는 독특한 매력과 현대여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세련된 유행성과 변화성이야말로 리틀 블랙드레스가 지속되어 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현대 패션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시각의 창조적 디자인 개발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며 현대여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적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는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박혜원, 김여숙 (2001). 리틀블랙드레스의 활용을 통한 미적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5(2).
- 2) 김기례, 채금석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 3) 광혜선, 금기숙 (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문혜정, 김민자 (1998).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복식, 41.
송명희 (1996).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기례, 채금석. 앞의 논문, p. 41.
- 5) Amy de la heye, Shelly tobin (1994). *Chanel: The couturier at work*. London: Victoria& Albert Museum, p. 42.
- 6) 이미숙 (1997). 샤넬스타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30.
- 7) Gerda Baubbaum (1999). *Icons of fashion*. London: Prestel, p. 41.
- 8) Didier Ludot (2001). *La petite robe noire*. Paris: Assouline, p. 76.
- 9) 송명희. 앞의 논문, pp. 26-27.
- 10) 박혜원, 김여숙. 앞의 논문, p. 4.
- 11) Didier Ludot. *op. cit.*, p. 76.
- 12) 김성복 (2000). 디자인문화비평 2. 서울 : 안그라픽스, pp. 52-53.
- 13) 김은덕, 김민자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 24, p. 168.
- 14) Leonard Koren (1984). *New fashion japan*.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p. 114.
- 15) 박혜원, 김여숙. 앞의 논문, p. 6.
- 16) *Vogue korea* (1992. 1), p. 118.
- 17) *W Korea* (2005. 9), p. 79.
- 18) *Vogue korea* (2001. 9), p. 121.
- 19) 박혜원, 김여숙. 앞의 논문, p. 7.
- 20) 김은덕, 김민자. 앞의 논문, p. 157.
- 21) 광혜선, 금기숙. 앞의 논문, p. 245.
- 22) 김현철 (1996). 몬드리안의 조형공간 교육론. 서울 : 발언, p. 66.
- 23) 광혜선, 금기숙. 앞의 논문, p. 241.
- 24) 박혜원, 김여숙. 앞의 논문, p. 8.
- 25) *Vogue korea. op. cit.*, p. 121.
- 26) *Harper's Bazaar* (2006. 1), p. 135.
- 27) 김기례, 채금석. 앞의 논문, p. 48.
- 28) 채금석, 이화정 (2002).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복식, 52(1), p. 112.
- 29) 성광숙, 이순홍 (2004).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II. 복식, 54(7), p. 161.
- 30) *Harper's Bazaar. op. cit.*, p. 135.
- 31) 문혜정, 김민자. 앞의 논문, p. 210.
- 32)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패션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6), p. 55.
- 33) 고현진, 김민자 (2004). 복식에 표현된 미적 개념으로서의 엘레 강스. 복식, 54(5), p. 104.
- 34) 김은실 (1999).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3.
- 35) 최해주, 안은경 (2003). 국내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 148.
- 36) 고현진, 김민자. 앞의 논문, p. 104.
- 37) 성광숙, 이순홍. 앞의 논문, p. 157.